

# 광주 우치동물원 26년만의 대변신

### 파충류관·식물원 통합... 동식물 공존 자연친화적 우리로

### 20억 들여 실시 설계 용역... 사육장 면적도 대폭 확대

광주 우치동물원 파충류관과 식물원이 26년 만에 동·식물원이 공존하는 형태로 거듭난다.

파충류를 좁은 우리와 콘크리트 건물에 가둬 놓았던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다.

23일 우치공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개원한 동물원 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파충류관(전체면적 354㎡)을 폐쇄한 뒤 노후한 식물원(전체면적 852.66㎡)을 파충류관과 결합한 형태의 우리로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식물원엔 허브·장미·알로에 등 식물 170종 4931그루가 전시 중이다. 우치공원은 내년까지 예산 20억 원을 들여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우리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재개장될 식물원엔 기존에 심어진 허브·수초·바위 등 식물을 이용, 악어·뱀 등 생태적 환경에 맞는 개별 우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식물 체험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한편, 박쥐를 위한 나무햇대와 각 파충류 특성에 맞는 개별 우리를 만들어 전시되는 동·식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육장도 대폭 커진다. 기존 전체면적 354㎡→852.66㎡로 확장하면서 각 동물들의 이동공간도 예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운동부족으로 흉근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파충류사는 비좁은 콘크리트 바닥에 관람용 유리 벽면으로 조성돼 있어 각 파충류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관람객 중심의 획일적인 공간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물원도 시설 노후화와 단순한 전시 패턴, 참신성 결여 등으로 관람객들로부터 소외를 받았었다.

파충류관이 예정대로 조성될 경우 생태·교육적 기능은 물론 치유와 치유리는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우치

공원 측의 설명이다.

전체면적 146.8㎡의 표범사도 리모델링해 재개장한다. 현재 표범사엔 표범 1마리·퓨마 3마리 등을 사육 중인데, 우치공원은 촘촘한 철창을 걷어내고 방사장 형태의 사육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무력감을 느끼는 고양이와 동물의 특성을 감안, 방사장 안에 인공바위와 수경시설·이동다리 등을 설치해 표범 등의 본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우치공원 관계자는 “동물원을 동물복지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여성폭력 근절

### 100일 총력 대응

#### 광주·전남경찰, 국정과제 이행

광주·전남경찰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실행에 나섰다.

경찰청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립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시행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10월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3대 치안정책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이다.

경찰은 젠더폭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보복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스토킹 처벌법 등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는 피서철을 맞아 성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해수욕장 등 휴양지에 설치된 여름경찰관서 79곳에서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한다. 휴양지 화장실 등에서 ‘물카’(물레카메라) 적발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도 활용한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업체 대표나 점주 등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 부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신고 받는다.

경찰은 최근 연인을 마구 때리고 트럭으로 사람들을 위협한 사건처럼 데이트폭력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 8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 발굴과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지역 유림들에 박수 받고 떠난 오세인 광주고검장

### 평소 향교·한학 깊은 관심

### 퇴임식 한학자 다수 참여

### 9월 광주~강원도 국토순례

### 김회재지검장 운동화 선물도

오세인 광주고검장이 지난 21일 퇴임했다. 재임기간 내내 광주·전남 지역민과 소통행보를 보였던 그는 떠날 때도 한학과 인문학을 접목한 이색 퇴임식으로 잔잔한 감동을 남겼다. 인문적 감성을 지닌 한학자를 꿈꿔왔던 그다운 퇴임식이었다.

오세인(52·사법연수원 18기) 제45대 광주고검장 취임 검사장은 이날 광주고검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 퇴임사에서 “광주에서 검사생활을 마감하게 돼 기쁘다. 광주·전남에서 수준높은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맛볼 수 있었고, 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 유산 등을 접하며 인문적 소양을 높일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고검장은 이날 후배들에게는 “그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눈여겨볼 ‘여덕기정 애금물희(如得其情 哀矜勿喜·죄인의 잘 못이나 실정을 알아냈다고 기뻐해서만은 안되며, 긍휼히 여겨라)’를 지표로 삼아 왔는데, 업무성과 등에 떠밀려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다하지 못한 것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퇴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오 고검장의 이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행보가 딱딱한 이미지로만 인식돼온 검찰



오세인(왼쪽) 광주고검장이 지난 21일 열린 퇴임식에서 김회재 광주지검장으로부터 운동화를 선물받고 있다. 오 고검장은 이 운동화를 신고 오는 9월까지 검찰 후배들과 광주에서 고향 강원도까지 국토순례에 나설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검장은 오 고검장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했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 고검장이 이틀 가을 검찰 후배들과 광주에서 고향 강원도까지 국토순례에 나선다는 말을 듣고 운동화를 준비했다”라며 선물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호남 대표 유학자인 노강 박래호, 니주향교 김평호 전교,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 등 유림도 다수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는 평소 오 고검장과 인연에 따른 것으로, 지역 유림들은 오 검사장이 평소 향교와 한학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마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퇴임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오 고검장의 이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행보가 딱딱한 이미지로만 인식돼온 검찰

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래호 전 선공관 부관장은 이날 헌시 낭송에서 “사람을 살펴보는 오 고검장의 예리한 지혜는 맑은 거울을 마주하는 듯했다”면서 “다시 뒷날을 기억하며 떠나 는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석별을 노래한다”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오 고검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강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대변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제42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받았지만, 동기인 문무일(56·18기) 부산고검장이 낙점되면서 퇴임을 선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달출몰 06:16  
해질름 19:42    달지름 20:20



###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26/34	보성	구름많음	24/34
목포	구름많음	26/33	순천	구름많음	27/34
여수	구름많음	27/33	영광	구름많음	26/33
나주	구름많음	25/34	진도	구름많음	26/33
완도	구름많음	26/34	전주	가끔흐리고 비	26/32
구례	가끔흐리고 비	25/34	군산	가끔흐리고 비	26/32
강진	구름많음	25/34	남원	가끔흐리고 비	26/33
해남	구름많음	25/34	홍산도	구름많음	23/29
장성	구름많음	25/33			

### 바다 날씨

목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0.5	남서	0.5
남부	남서	0.5~1.0	남서	0.5~1.0
안남	남서	0.5	남서	0.5
남해	남서(동)	0.5~1.0	남서	0.5~1.0
서부	남서(서)	0.5~1.5	남서	0.5~1.5

### 물때

목표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8:02	02:48	20:07	14:49
	03:31	09:38	15:39	22:13

### 주간 날씨

25(화)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	☀	☀	☀	☀	☀	☀
27/33	26/33	24/33	24/33	25/33	25/33	25/32

◇ 생활지수

- 식중독
- 매우높음
- 자외선
- 높음
- 피부질환

## DJ 정신·철학 느껴 보세요

### 다음달 5~6일 목포·신안·광주서 ‘김대중평화캠프’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 8주기를 맞아 ‘당신은 우리입니다’를 주제로 ‘2017김대중평화캠프’가 다음달 5~6일 목포, 신안군 하의도, 광주 등에서 열린다. ‘2017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원회’(명예위원장 김해동)가 주최·주관하는 ‘김대중평화캠프’는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8월 5일 오후 2시 목포 삼학도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관람을 시작으로 발차취 답사(영신여관~북교초등학교~목상교) 등을 진행

하고, 오후 7시에는 개회식과 함께 ‘김대중 평화의 밤 콘서트’를 연다. 6일은 신안군 하의도 답사(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추도식, 남대위유물, 모래구미해수욕장 등)와 남도 답사(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화순적벽, 담양소쇄원)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 참가 희망자는 25일까지 (사)행동하는 양심(02-711-0615) 또는 (사)민생평화광장(062-511-7171)로 전화 신청하거나 다음블로그 ‘2017김대중평화캠프’를 이용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 휴가철 줄음운전 사고 전국에서 세번째 많아

최근 4년간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줄음운전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돼 줄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4년간(2013~2016년)간 줄음운전 사고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찰에 접수 처리된 줄음운전 인적 피해자도 건수는 총 1만72건이었다. 모두 457명이 사망하고 2만55명만 부상했다.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휴가철인 7월(968건)과 8월(948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5월(940건) ▲6월(872건) ▲3월(859건) ▲9월(856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1609건)에서 줄음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1303건) ▲전남(1007건) ▲경남(978건) ▲경북(834건) ▲경기 북부(646건) ▲충남(582건) ▲강원(476건) 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강안본사 02)2248-5600    ◆충주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창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범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 1544-9040